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8. 9.(금)

한-미 에너지장관회담 열려

- 산업부-미 에너지부, 한-미 정례적 민관 협력 채널 구축 합의
- 무탄소에너지 활용 청정 전력 확대 및 탄소 저감 기술 확대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8.7.~8.8. 양일(현지 시각)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글랜홈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에너지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및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력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장관급 에너지정책대화와 청정에너지 민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논의하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배터리, 에너지저장,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기업들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초고압송전망 등 전력 설비 시장도 커질 전망에 따라 양국의 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더욱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안 장관은 한국이 2025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활용을 통한 APEC 역내 청정 전력 확대' 계획을 주요 의제로 검토 중임을 공유하고, 미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연료 활용,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도 논의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유사 입장국 간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양국 협력 플랫폼이 기업 간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영문 보도자료**

ROK-US Energy Ministerial Meeting for Clean Energy Cooperation

The Kore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hn Duk-geun met with the US Secretary of Energy Jennifer Granholm at the ROK-US Energy Ministerial Meeting in Washington, D.C. on the 7th to 8th of August.

The two ministers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towards reducing carbon emission, achieving energy security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rdination in efforts such as decarbonizing the industry and power sectors. There was also a consensus on build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a means of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They also discussed holding the Ministerial Energy Policy Dialogue and public-private clean energy forum on a regular basis. Sinc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was signed into law, the two countries have seen an increased level of business-to-business exchange in areas such as batteries, energy storage, hydrogen, and renewable energy. Growing prospects of electrical equipment markets, including ultra-high-voltage transmission systems for expanding renewable energy, such as off-shore wind, also highlight the significant need to continue regular cooperative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Minister Ahn also shared Korea's views as the 2025 APEC Host to promote carbon-free energy technologies such as nuclear,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as a means to expand clean electricity across the region and requested US support. The meeting also covered discussions on sustainable future fuels for industrial decarbonization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for carbon capture, storage, and removal technologies.

"Strategic and comprehensive clean energy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ilds on our strong US-ROK Alliance and matters more than ever given the importance of building stable clean energy supply chains among like-minded countries. The ironclad ROK-US Alliance contributes to global climate action, stable energy supply chains, and energy security. The bilateral cooperative platform can be a stepping stone to increased business opportunities, increased investment, and, ultimately, global clean energy leadership," said Minister Ahn.